

'스마트폰 이머징마켓' 성장 지속

세계 시장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로 성장 회복세... 삼성·LG, 마케팅 더욱 강화

'포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 중국 등 이머징마켓이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도 이들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2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사상 최대인 14억 882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4분기(10~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4억3870만대가 판매됐다. 2015년 4분기 성장세가 6.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가 우려했던 '경착륙'까지는 아닌 셈이다.

린다 수이 SA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스마트폰 성장세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높았던 분기 성장률"이라며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3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난 1억 2080만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됐다. 이는 3분기 글로벌 판매량(3억7450만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 다양한 4G 플래그십 모델 출시, 중국 이동통신사의 직간접적인 보조금 등이 판매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가 심상치 않다.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



2017년도 경영협약식 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17년도 경영협약식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 경제·금융기자 경영진들이 경영협약 체결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난해 말 기준으로 39%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13억 인구를 지닌 만큼 규모 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판매된 스마트폰은 8300만대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작년 4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전 분기 대비 17%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나타났던 하락폭이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발표한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500루피(약 8500원)와 1000루피(약 1만7000원) 화폐 사용을 금

지시켰다. 이는 전체 현금 흐름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인도 정부는 500루피와 2000루피 신권을 발행했지만 신권 부족 등으로 화폐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휴대폰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칠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화폐 개혁이 안정화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등의 모멘텀을 통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및 중저가 라인을 앞세우는 투트랙 전략으로 신흥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삼성디자인중국연구소(SDC)에서 개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를 내놔고, 인도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7, A와 J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3500억원 규모의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인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인도 현지 스마트폰 공장을 임대해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성장세가 한층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이머징마켓에서의 경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충전기 1대로 전기차 18대 동시 충전

한전, '전기차 다중 동시 충·방전 시스템' 개발

한국전력이 1대의 충전기로 여러 대의 전기차 동시 충전하고,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기차 다중 동시 충·방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전은 개발된 충전기 1대에 여러 개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주차공간마다 각각의 소켓을 설치할 경우 한 번에 최대 18대의 전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충전 시스템은 1대의 충전기에 1대의 전기차만 충전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한 기존 충전기의 단점을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고가의 충전기 수를 줄임으로써 주차장 충전시설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충전기 보급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기차와 총방전 시스템에 탑재된 통신기능을 통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기술인 V2G(Vehicle to Grid) 기술이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 전력망에서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다시 역송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12월 한전이 개발한 한국형 V2G 기술은 국내 스마트그리드 협회의 기술표준으로 제정된

가운데 현재 국제표준 규격(IEC15118)에도 제안돼 있다. 채택될 경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전기차 동시 충·방전 시스템을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내 설치 완료하고 향후 6개월간의 시스템 실증을 거쳐 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와 공용주차장, 대형 쇼핑몰 등의 주차장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연구원이 실증을 위해 주차장에 설치한 동시 충·방전시스템 1대에는 소켓 18개가 설치돼 있다.

이 충전기는 일반 차량과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주차장내 어느 곳에 주차해도 근처의 충전 소켓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실증됐다.

한전은 이번에 개발한 전기차 충·방전 시스템과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시장 수요반응, 건물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출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 가능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표준 기반의 전기차 충전기용 운영체제(OS)도 개발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충전기형 V2G 기술은 국내 스마트그리드 협회의 기술표준으로 제정된" /뉴시스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세... 고정금리 혼조세

변동금리 산정 기준 코픽스 4개월 연속 ↑... 고정금리 기준 금융채 금리 예측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경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정금리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국내 4개 시중은행(KB국민· 신한·우리·KEB하나)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국민은행 변동금리는 지난해말 3.07

~4.37%에서 지난달말 3.20~4.50%로 하단과 상단 모두 0.13%포인트씩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26~4.56%에서 3.46~4.57%, 우리은행은 3.01~4.01%에서 3.06~4.06%, KEB하나은행은 3.06~3.83%에서 3.11~3.88%로 변동금리가 일제히 뛰었다.

변동금리는 매달 집계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정 기준 삼는데 코픽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

스는 9월(1.35%) 대비 0.21%포인트 오른 1.56%다.

고정금리는 은행마다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는 지난해 12월말 3.41~4.71%에서 지난달말 3.51~4.85%로 하단은 0.10%포인트, 상단은 0.14%씩 상승했다.

KEB하나은행은 3.42~4.53%에서 3.49~4.60%로 하·상단 모두 0.07%포인트 고정금리가 올랐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고정금리는 각각 3.49~4.60%에서 3.46~4.57%, 3.39~4.39%에서 3.35~4.35%로 전월 대비 소폭 내렸다.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5년물) 금리는 트럼프가 취임한 지난 21일(한국시간) 이후 예측불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2.06%를 기록했던 금융채 금리는 26일 2.03%까지 떨어졌다가 31일 다시 2.05%로 반등했다. 지난해말 2.03%와 비교하면 금리가 0.02%포인트 정도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뒤 미국 채권금리가 들쭉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채 금리에 연동되는 주담대 고정금리도 은행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국내 부자들 상속·증여 수단 '부동산'

국내 부자들이 상속 및 증여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부동산'으로 조사됐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 및 경제습관 등을 분석한 '2017년 Korean Wealth Report(한국 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EB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중 총 1028명의 설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내 부자들이 상속증여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는 부동산(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현금·예금(30%), 보험(10%),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9%)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투자형 금융상품과 현금·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직전 조사 대비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이는 향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낮아진 가치로 상속증여할 경우 향후 부동산 가격 회복으로 인한 자녀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국내 부자들의 41%는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증여를 한 부자의 비중은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상속·증여는 여전히 자녀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손주에 대한 자산 증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